

64년 만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능력 중심 '방점'

새 정부 첫 장관 인선 배경과 의미

“실용·효능감... 국정 철학 반영”
노동부에 현직 철도기관사 출신
송미령 장관 유임 “실용주의 기반”
한성숙 등 기업인 출신 후보 눈길

이재명정부장관급인선 현황

국방부장관 후보자	통일부장관 후보자	외교부장관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보훈부장관 후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임)	국무조정실장
안규백(64) •1961년 전북 고창 출생 •성균관대 철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무역학 •제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정동영(72) •1953년 전북 순창 출생 •서울대 국사학과 •영국 웨일즈대 카디프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제15·16·18·20·22대 국회의원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조현(68) •1957년 전북 김제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프랑스 툴루즈대 국제정치학 박사 •외시 13회 •외교부 제1·2차관 •주유엔(UN) 대사	배경훈(49) •1976년 서울 출생 •광운대 전자공학과 •광운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박사 •미국 컬럼비아사단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LGA연구원 원장	권오을(68) •1957년 경북 안동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과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김성환(60) •1965년 전남 여수 출생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제20·21·22대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강선우(47) •1978년 대구 출생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화여대 대학원 소비자간발달학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미국 서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제21·22대 국회의원	전재수(54) •1971년 경남 의령 출생 •동국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제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한성숙(58) •1967년 경기 출생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네이버 고문	김영훈(57) •1968년 부산 출생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전국인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전국농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송미령(58)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환경계획학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윤창렬(58) •1967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행정학과 •행시 34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은 실용과 효능감, 풍부한 경험 등 능력 중심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해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강 비서실장은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후보자 3명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전북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명됐다.

부산 출신인 김영훈 전 위원장은 지난 1992년 철도청(한국철도공사 전신)에 입사해 현재까지 현직 철도 기관사로 활동 중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노동본부 부부장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

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 후보자들도 눈에 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LG AI연구원장)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탁 산업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강 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라며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 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다.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 출신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 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다.

이날 인선 중 가장 눈길을 끈 후보자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적은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직이 유임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

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후보자들은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특히 국익 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 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른 부처 장관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검증은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머지 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남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기후에너지부 유치 건의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 간담회 에너지3법 정비 등 지원 요청도

전라남도는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 파악 등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필요성과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강화를 강조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자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9명이 목포시항만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해상풍

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법·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3법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입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될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AI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는 국경과제이자 전남

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입법·제도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주도·민간협력·지역상생’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배후항만 기반 조성, 전력계통 연계, 주민참여 모델, 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섭취량: 중 용 이상에 함유량이 300mg 이하입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